



SARAZING

시론 02

도시의 품격, 건축사의 책임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2025년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03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개최
전라남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시스템 도입
전라남도 영광군, '2025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전북 지역 뉴스 06-07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유영욱 대표, 전북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5 건축올림피아드'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전 개최

광주 지역 뉴스 08-09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0월 21일 개막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호남권역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2025년 제2차 건축사자격시험, 광주권에서 실시

특별기획(건축사의 미술전) 10

행복한 그림쟁이 그리고 삶의 노래

설계경기 11

무안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가을 바다
한 장의 사진 _ 1 Kinkakujicho, Kita Ward, Kyoto, 603-8361
책 소개 _ 급류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10.19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도시의 품격, 건축사의 책임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바우 건축사사무소
bauhaus08@hanmail.net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고풍스러운 한옥마을에서부터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같은 신도시의 현대적 기능성에 이르기까지,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그 정체성을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데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가꾸는 건축사의 책임은 특히 '도시의 얼굴'이라 불리는 좋은 공공건축물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을 누리고,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공공건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능과 품질은 시민의 자부심이 될 만큼 뛰어나야 한다. 건축사들은 공공건축물을 통해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민간의 건축물 역시 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건축사들은 행정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도시를 깊이 이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나아가 도시정책의 조언자이자 시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축사들이 도시 정책과 공공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된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됐다.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역시 건축계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 채의 건축물, 한 사람의 건축사가 지역의 에너지 사용과 환경 영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친환경 건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전주 또한 이에 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주만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도시건축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실현해 나가겠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건축사들의 책임이자 소명이다. 우리가 짓는 건물 하나는, 먼 훗날 이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가 될 것이기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손윤희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휘경 건축사사무소
hwi0402@hanmail.net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

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가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의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주) 지에이환경기술원

최상의 분석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 컨설팅을 One Stop 서비스 하는 전문기업

목적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기술 및 녹색건축 문화 보급

주요업무

- ▶ 녹색건축 인증 컨설팅
- ▶ 제로에너지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컨설팅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 컨설팅

녹색건축 인증 컨설팅
(G-SEED Consulting)

녹색건축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
(Barrier Free)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Building Energy Efficiency Consultin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 주체 및 건물 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컨설팅
(Zero Energy Building Consultin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

ONE STOP SERVICE

Tel 062)373-3131 E-mail gaarch0801@naver.com
Fax 062)373-3132 H.P 010-3086-8789 대표 이정준

2025년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에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

- 지난 10월 20일, 어반브룩에서 열린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추대식 열려

양동협 건축사는 1972년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40여년간 건축설계와 감리 분야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건축 전문가입니다. 특히 그는 건축물의 공공성, 시민과의 친밀성, 주거의 안정성과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구상해 왔으며, 설계 의도를 실현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감리를 철저히 진행하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동료 건축인들의 깊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건축 실무에서의 공로 외에도, 양 건축사는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시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 건축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광주 지역 건축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추대식

- 약력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출생
 - 광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동림 건축연구소 개소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조선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도시 설계 전공 석사
 -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사)장애없는 세상만들기 대표
 - (사)한국건축가협회 감사
- 수상경력
- 광주광역시장상 수상 (1990/1992/2000/2006/20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2008.9.)
 - 국무총리상 수상(2014.10.)

양동협 건축사 주요 작품



창업보육센터 (2008)



전남여자고등학교 본관 (1999)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관 (1982)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2000)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2000)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 (2008)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1996)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2009)



조선대학교 국제관 (2011)



전남 학생종합 교육원 (1997)

양동협 건축사, 삶의 이모저모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1969)



건축사사무소 개소, 금남로 사옥에서 (1976)



(사)한국건축가협회 회의 참석 (1991)



故 김태만 선생님과 일본에서 (1991)



대한민국 건축의날 - 국무총리상 수상 (2014)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부편집인

자문위원

전담기자

편집위원

등록번호

간별

등록일자

편집및인쇄

광고신청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허만수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김종문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광주광역시 라00144

월간

2010-01-25

레이아웃 T. 070-8277-2589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하단광고 : 350,000원

•하단1/2광고 : 200,000원

•구독료 : 무료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전기금 : 1만원부터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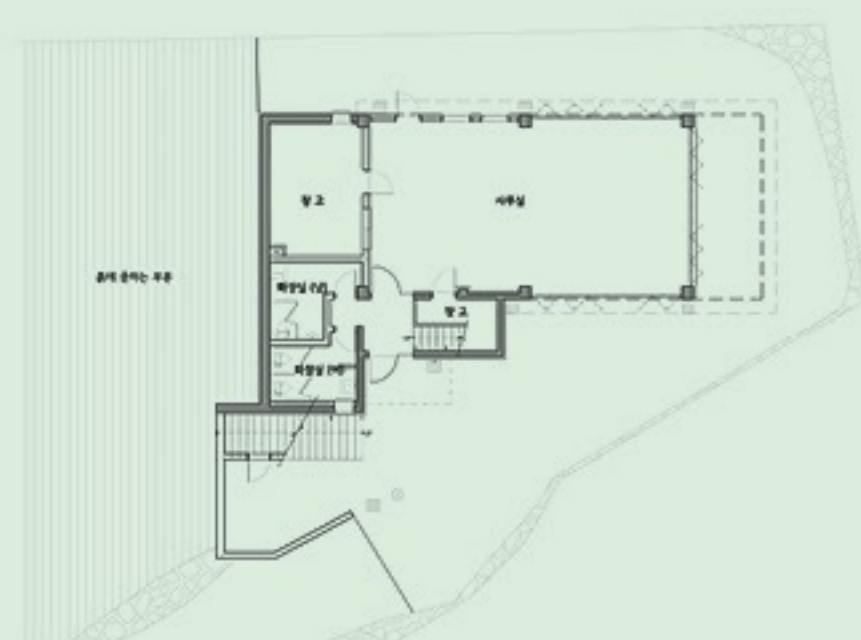
에스펠리어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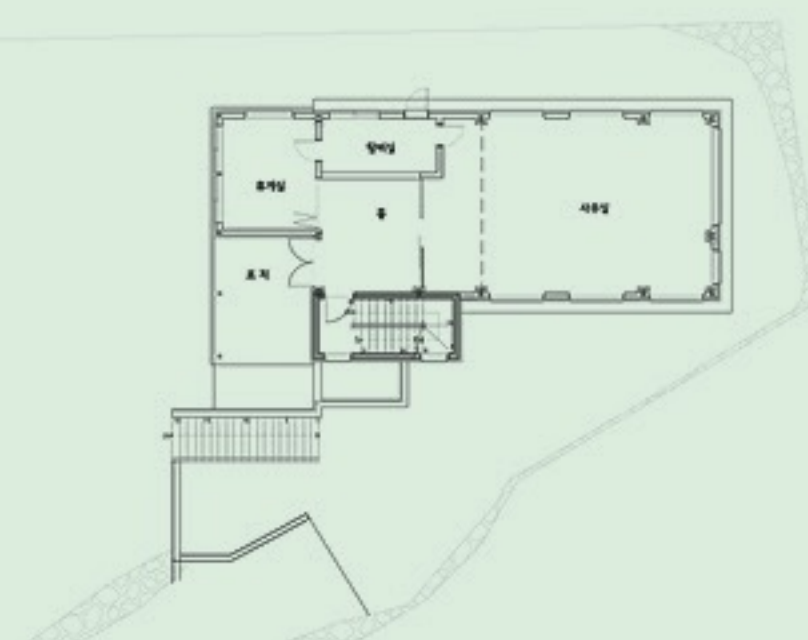
전남 순천시 중앙2길 11-5
Tel. 061-742-4680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517-1번지 / 대지면적 : 2,080㎡ / 건축면적 : 138.48㎡ / 연면적 : 262.14㎡ / 건폐율 : 9.12%
용적율 : 12.60% / 규모 : 지상 2층 / 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카페)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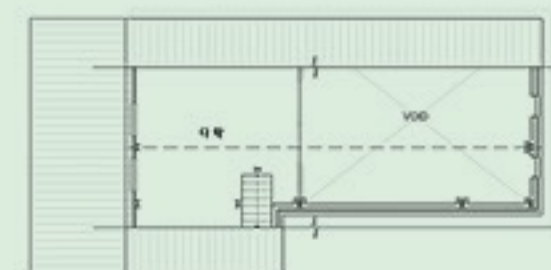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농업법인 에스펠리어가 화초 재배와 판매, 그리고 재배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지는 시내에서 벗어난 낮은 산 능선에 위치해 자동차로만 접근 가능하며, 기존의 3단 경사지 지형을 성토와 석축으로 보완해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배치를 계획하였다.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사무실과 화장실, 2층은 카페로 사용되나 교육 시 교육공간으로 전환된다. 박공지붕 구조로 인해 다락이 마련되어 2층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 계단을 통해 각 층과 접근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외부 마감은 백색 스타코플렉스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붕은 알루미늄 징크로 마감해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곳은 오랜 꿈을 담아낸 공간으로,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육을 나누는 소중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철근 대비 인정강도 2배
ESG경영우수선 (저탄소 제품)
건물유지보수 비용 절감
철근콘크리트의 취약점 해소
내부식성, 비자성, 내화학성,
부도체 (열차단성)

시공사

중대재해 ZERO (낙하, 감전)
철근 대비 1/4 중량 (경량화)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철근대비 시공 생산성 176%
물류비 절감
길이 별 납품 가능 (3m~15m)

건축사

조달청 혁신/우수제품 지정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기술 녹색자재 인증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LCC) 절감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근골격 질환예방 (경량화)
작업 피로도 감소 (열차단성)
감전 사고 예방 (비전도성)
고용효과 증대 (여성, 노년)

설계 (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 (농어촌공사), 조선소 (항만) 특화자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 (공장)



근생주택



조선소 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개최

9월 30일, 장흥 JNJ CC에서 친목 도모 골프 행사 성료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9월 30일(화) 전남 장흥에 위치한 JNJ CC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목 도모를 위한 골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업무 현장을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회원들 간의 깊은 친목과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며 동료 건축사들과의 우의를 다졌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행사가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건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시스템 도입

공공건축 설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공공건축 설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인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공 건축물의 설계공모부터 심사위원 선정 및 관리,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건축HUB 도입은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설계 공모 절차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이다. 전라남도는 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시·군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설계공모 등록 절차,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방법, 참가업체 자격 검토 등 건축HUB 활용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건축HUB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설계공모 참가업체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모 과정과 심사위원 관리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춘섭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건축HUB 도입을 통해 설계공모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남만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전라남도 목재누리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해 총 31건의 설계 공모를 완료했으며, 현재도 16건의 설계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공 건축의 질적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 영광군, ‘2025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군민 편의 향상...



(사진 = 영광군 제공)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9일 군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직원 및 공무원 등 건축인허가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군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주 대상 인·허가 소요 기간 안내 의무화 및 민원서류 준비 철저 요청 ▲인·허가 협의부서 업무 처리 문제점 개선 ▲체류형 쉼터 부지 내 정화조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 5월 열린 ‘생활밀착형 건축인허가 신속 처리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주요 보완사항 및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 민원의 경우 관련 부서와 인허가접수 전 별도 사전협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렴한 행정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광군은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무안군, 무안읍 다목적체육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구)무안고 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해...



(사진 = 무안군청 제공)

전남 무안군은 21일 ‘무안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이담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 ‘무안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무안읍 교촌리 일원에 (구)무안고 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되며, 실내에는 핸드볼 및 배드민턴 코트 등 다목적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갖춘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번 심사는 배치, 공간 활용,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김산 군수는 “체육관이 완공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 중인 무안 초·중·고 핸드볼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2명 (2025. 10. 22. 기준)

• 변경(소재지)

- 이형준 건축사 / 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3길 21-17, 1층 우측
- 박영진 건축사 / 나루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3, 601호
- 문범준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25, 1층 101호

• 변경(근무처)

- 김병수 건축사 /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3, 201호

• 결혼

- 이완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 자녀결혼 - 2025년 10월 25일(토)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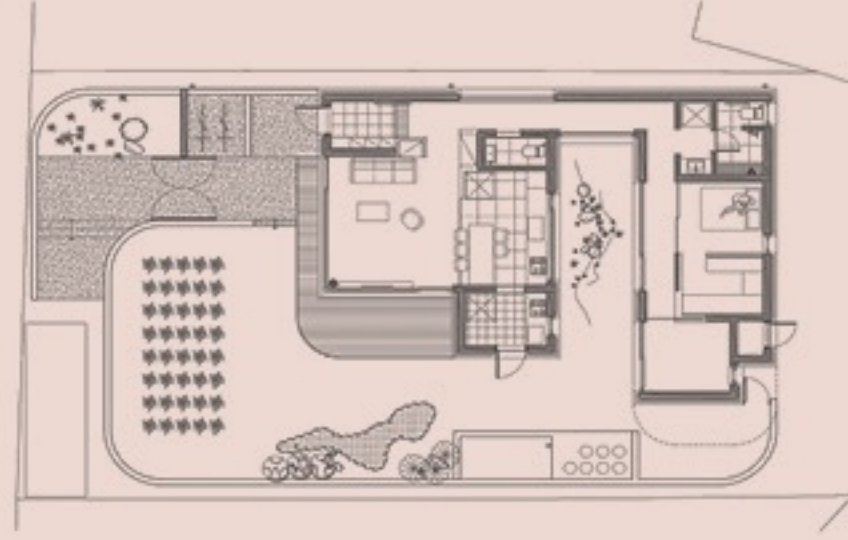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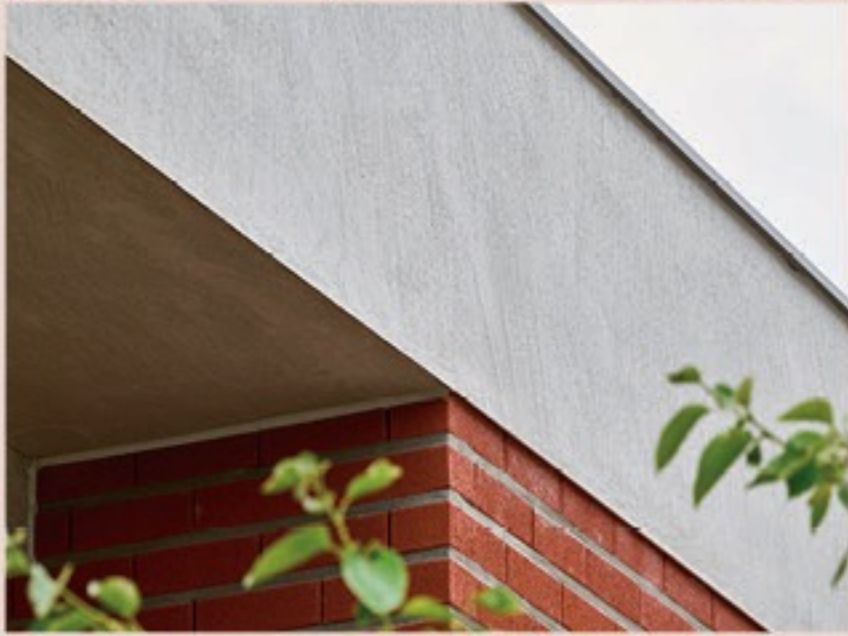


동글집

최정인 건축사 / 일상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5길 23, 1층
Tel. 063-273-2313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왕정동 175-3 / 대지면적 : 450.00㎡ / 건축면적 : 108.76㎡ / 연면적 : 116.66㎡
건폐율 : 25.93% / 용적률 : 24.17%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버님은 과거 형틀목수로 가족을 부양했다. 동글집의 뼈대를 만드는 일은 아버님이 직접 나셨다. 물론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게 만들어 질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생각했다. 개방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필요했다. 마을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눈높이 정도의 담장을 계획했다. 낮은 담장은 주변의 시선을 적당히 차단하고 내부 마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넓은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매스를 펼쳐 놓고자 했다. 펼쳐진 매스를 중심으로 추후 텃밭으로 활용이 가능한 넓은 마당, 사이조경, 야외창고, 자전거 주차장 등을 계획했다. 시골생활의 특성상 주변 지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일이 잦기에 거실+주방+평상+마당을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전면에 배치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구분 지었다. ”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유영욱 대표, 전북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유영욱 대표, 전북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사진 = 전북 순창군 제공)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유영욱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순창군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유영욱 대표는 고향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유 대표가 운영 중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은 전주시에서 2021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전주 새솔 유치원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영욱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 순창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기부를 보여주신 유영욱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통해 소외되는 이 없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5 건축올림피아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5 건축올림피아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전북 건축문화 발전과 우수한 건축 인재 발굴을 위하여 ‘제26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건축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

이번 건축올림피아드는 오는 11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창조관 1층 41R 라운지에서 경연 및 전시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10월 30일(목)까지 이메일(cityarchi@naver.com)로 접수해야 한다. 참가자는 학교 추천서와 응모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네이버 mybox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새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가 주관을 맡아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학생들이 건축 올림피아드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북 건축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063-220-3870) 또는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 공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전 개최

4년간 학업 결실 담은 졸업작품 22점 공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대 미술관에서 ‘2025 국립군산대 건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건축전은 건축공학부 학생들이 4년간의 학업을 통해 쌓아온 실력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졸업작품전으로 건축 공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 학생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작품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 받는다.

전시에는 건축공학부 4학년 학생 56명이 참여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22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군산대 건축공학부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으며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건축인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정비

생산관리지역 창업 확대, 환경 위해시설 규제 강화...

전북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정비를 완료하고,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9월 말 공포하여



(사진 = 전북 정읍시 제공)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정읍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 운영이 허용된다. 이는 그동안 1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건축이 제한됐던 생산관리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거지와와의 이격 거리를 조정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거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건강권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시는 이 밖에도 법률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와 보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대우 도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법규 위반 건축물 양성화 종합 대책 추진...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전주시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창구’ 운영 병행 예정

전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건축 상담 창구’ 운영을 병행하여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18일,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이다.

특히,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조치 건축물과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옥상 위 비가림시설이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과 감경 기간 역시 상향 조정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회도 최근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민 생활 환경 개선과 제도 합리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 및 복잡한 관련 법 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주시건축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양성화 절차와 맞춤형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이번 종합 대책 추진이 생활 밀착형 위반 건축물 소유주들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김성수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상담 창구 운영 제도는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8명 (2025. 10. 16. 기준)

- 퇴회
 - 김성수 건축사 / (주)미래종합 건축사사무소
- 결혼
 - 안규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안 / 본인 결혼 - 2025년 09월 28일(일)
- 부고
 - 이영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국토 / 모친상 - 2025년 09월 12일(금)
 - 김윤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인 / 빙부상 - 2025년 09월 14일(일)
 - 이정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인 / 모친상 - 2025년 09월 17일(수)
 - 김종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케이플렌 / 빙모상 - 2025년 09월 28일(일)
 - 박진주 건축사 / 현창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5년 10월 04일(토)
 - 김동범 건축사 / 동방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10월 06일(월)
 - 이동식 건축사 / 주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10월 11일(토)

1204 DESIGN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4층 / Tel. 062-945-5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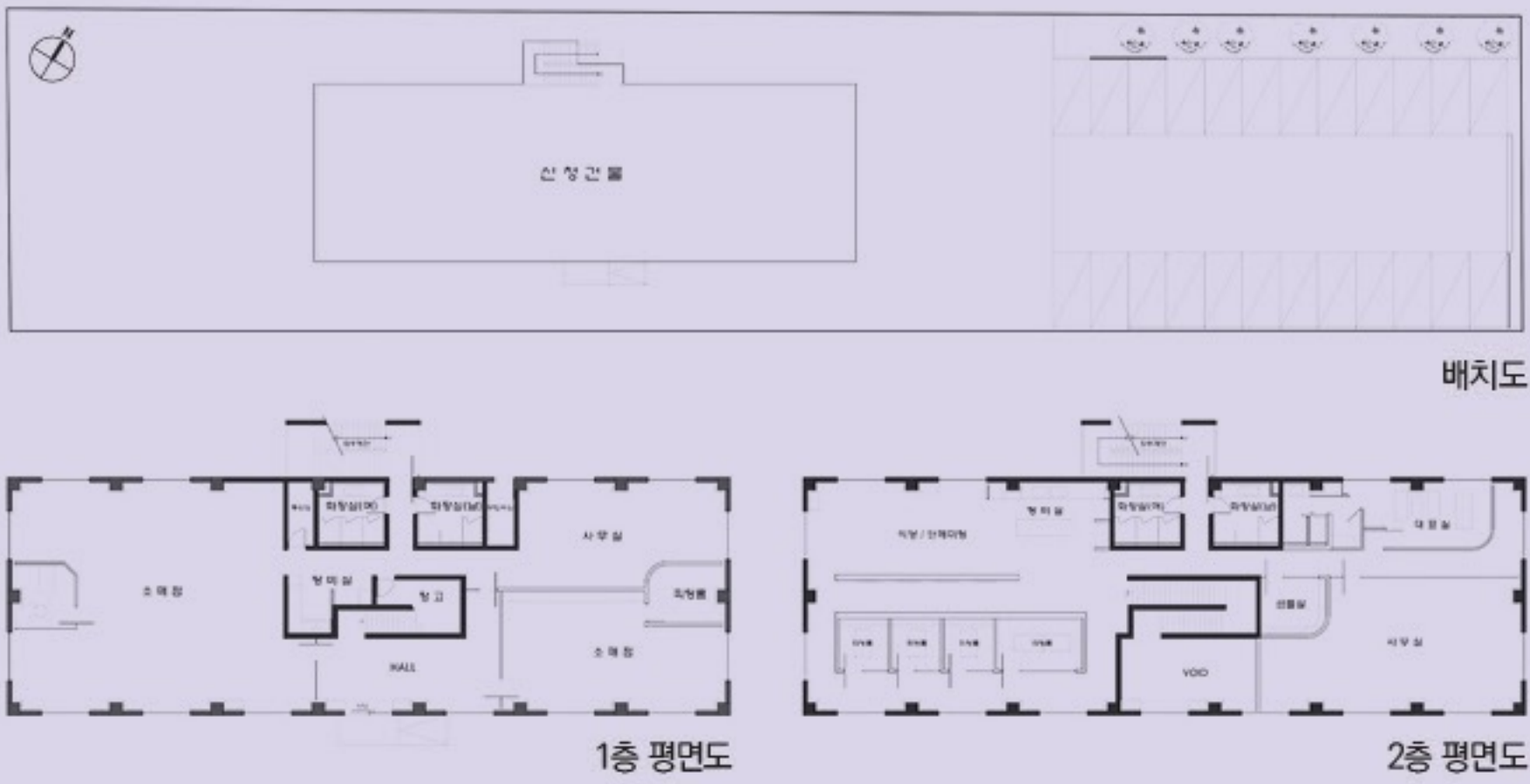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542-6외 2필지 / 대지면적 : 2,095.00㎡ / 건축면적 : 418.73㎡ / 연면적 : 806.70㎡
건폐율 : 19.99% / 용적률 : 38.51%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심의 고층 아파트 군락과 들판의 경계에, 한 채의 건물이 놓여 있다. 도심과 농지, 뻥뻥함과 비움, 규칙과 자유의 사이에서 이 건물은 자신만의 태도를 드러낸다. 노출콘크리트의 담백한 표면은 장식을 거부한다.

반듯한 정사각형의 창들은 건물의 리듬을 만든다.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어느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직선의 나열은 묘하게도 풍경 속에 녹아들며 동시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정면의 질서는 내부의 질서로 이어진다. 창 너머의 빛과 그림자가 반듯한 프레임 안에서 하루 종일 움직인다. 하루 동안의 변화와는 달리, 건물의 외벽은 늘 한결같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콘크리트 표면에 스며드는 빛은 늘 같은 자리에서, 다른 표정으로 건물을 비추고 있다. ‘1204 DESIGN’이라는 이름이 건물의 모서리에 작게 붙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듯, 간결한 외피와 이름은 오히려 내부의 밀도를 상상하게 한다.



광주건축사회 “2025 건설안전·품질 세르파” 교육 안내

(1) 행사개요

- 목적 : 건설현장 점검방식 및 중점관리 사항,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분석,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등 교육을 통해 광주건축사회원의 능력 향상을 위함
- 일시 : 2025. 11. 3.(월) 오후 1시 ~ 5시 30분
- 장소 : 광주건축사회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광주건축사회원
- 주관 :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 수강료 : 무료(자기계발 1시간 인정)
- 신청방법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59233번 참조

(2) 세부일정

구분	내용	비고
13:00-13:15	개회식 / 인사말씀	호남지역본부장/광주건축사회 회장
13:15-13:50	건설안전 세르파·동행방안 소개 건설현장 점검방식 및 중점관리 사항	건설안전품질실 오종철 차장
13:50-14:30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분석	건설안전품질실 문재성 차장
14:30-14:40	휴 식	
14:40-15:30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건설안전품질실 안정섭 팀장
15:30-16:00	SMART 건설안전장비 소개 및 시연	사업지원실 정기종 팀장
16:00-16:10	휴 식	
16:10-17:00	가상(VR)안전체험 및 진단장비 (초음파 반발측정, 철근탐지기) 시연	건설안전품질실 신우현, 유영록
17:00-17:20	기념사진 촬영 (안전건설팅 동행 발대식)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0월 21일 개막식 개최

「건축, 시간과 공간」 건축으로 연결하는 도시



광주 지역 건축 관련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 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각각 진행하던 사업을 통합해 한 곳에서 모아 펼쳐지는 건축 문화

축제인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건축, 시간과 공간」 건축으로 연결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에 대한 시민의 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건축사, 건축관련 교수 등 건축인들과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건축도시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는 행사로 2025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광주건축사회 회원출품작품전, 타·시도 건축상,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품전, 광주·전남 건축전공학과 학생 우수작품전, 광주전남건축가회 이동희 교수 건축사진 초대전 등 다양한 행사와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제 전시작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가 함께 진행되는데 건축단체연합회(<https://gifika.org>)에 접속하여 관람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호남권역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건설안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건설안전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전북·제주 건축사회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에서 호남권역 건설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

약은 시민들의 건설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축사 회원들의 현장 안전관리와 점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김병철 본부장을 비롯해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 이경일 전남건축사회 회장,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현군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안전 관리 등과 관련한 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정보체계 구축을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안전관리 자문 및 컨설팅 ▲건설안전 홍보와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공공적 역할과 건축사회의 전문역량을 결합해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제2차 건축사자격시험, 광주권에서 실시

응시율 평균 63.3%, 광주지역 제1차 시험 합격자 17명 배출

2025년 제2차 건축사자격시험이 지난 9월 20일(토) 광주지역 상무고등학교와 광주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광주권에서 과목별로 평균 531명이 출원했으며, 평균 응시율은

63.3%로 집계됐다.

과목별 응시 현황은 ▲1교시(대지계획) 출원자 530명 중 355명 응시(응시율 67.0%), ▲2교시(건축설계1) 531명 중 342명 응시(64.4%), ▲3교시(건축설계2) 532명 중 311명 응시(58.5%)로 나타났다.

한편, 제1차 건축사자격시험에서는 광주지역 응시자 333명 중 17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617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축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행 제도, 건축준공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논의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9월 24일(수) 오후 2시, 광주시청 건축경관과에서 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건축경관과 정승철 과장, 김일곤 팀장, 강인영 주무관,

그리고 광주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정명환·박상구 부회장, 임경희 부이사장이 참석해 지역 건축행정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복잡해지는 건축행정 절차 속에서, 행정기관과 건축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행 제도 ▲건축준공인허가 절차 간소화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다뤄졌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과 건축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건축사와 행정기관이 함께 소통하며 정책적 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2명 (2025. 10. 16. 기준)

•입회

- 천 영 건축사 / 씨엔와이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빌딩 A동 1212호

•퇴회

- 정광일 건축사 / (주)동산 건축사사무소

•결혼

- 남상영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0월 18일(토)

- 오방은 건축사 / 한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1월 1일(토)

- 선거택 건축사 / (주)HSG그룹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1월 8일(토)

- 박신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림 / 딸 결혼 - 2025년 11월 16일(일)

•부고

- 차예진 건축사 / 프리핸드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9월 18일(목)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9월 21일(일)

- 김선웅 건축사 / 소강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10월 11일(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별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행복한 그림쟁이 그리고 삶의 노래



김선채 건축사
뉴텍 건축사사무소(광주)

김선채 건축사(뉴텍 건축사사무소)는 2025. 09. 10.(수) ~ 21(일) 금봉미술관에서 개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행복한 그림쟁이’는 건축사로서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창작의 기쁨에 몰두하는 작가의 모습을 대변하며, ‘삶의 노래’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관찰하며 깨달은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냈다.

단순히 그림을 넘어, 복잡한 업무 속에서도 예술적 영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삶의 노래를 가꾸어 나가는 선배의 모습을 통해 많은 건축인들이 일상과 창작 사이의 균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모니〉

규격 : 50f / 재료 : 캔버스 위 오일페인트

달처럼 보이는 큰별 앞에 맨몸의 남자가 온몸에 여러색을 body 페인팅을 하고 피아노 건반 위(아파트지붕)에 서서 우주를 지휘를 하고 있다.

즉 건축과 음악과 미술 그리고 모든 예술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간다는 뜻이다.

구름처럼 선으로 표현한 오선지 색은 파란색으로 가다가 빨간색으로 연결된다. 즉 손을 잡는다는 의미다.(강약, 남과북, 여야, 좌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돌이표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연주가 우주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렸다.

앞에 C 처럼 보인 것은 태양이고 우측면 노란 것은 달이다. 바탕은 우주공간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쫓아 전쟁도 서슴치 않는 세계정세. 우리도 마찬가지다. 특히 좌우 이념 간 남과북, 여야 등 갈등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

이처럼 여러 모양새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들도 모두 화합하여 평화의 날들이 오기를 소망한다.



〈배려〉



〈달맞이꽃〉



〈어머니〉

규격 : 12P

재료 : 종이 위 오일페인트

멀리 교회가 있는 마을과 언덕 감나무처럼 보이는 여인이 가을 들녘을 걸어오고 있다.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까지 감나무는 연초록 싹을 키워 오다가 때가 되면 아이를 잉태한다.(감뽕) 이라고 한다. 계절이 가면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흑 새들의 먹이가 될까봐, 흑 잘못된 길을 갈까봐 몰래몰래 품 속에 안고 키우다가 가을이 되면서 낙엽이 질때 쫄쫄 비로서 빨갛게 (감) 세상에 내어 놓는다. 다음 세대의 씨앗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감나무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어머니를 보았다.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배 속에 보호하였다가 내어놓는 어머니는 산고의 고통으로 자기 몸은 헤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불품없이 되어간다.

다음 세대를 세상에 내어주며.....

무안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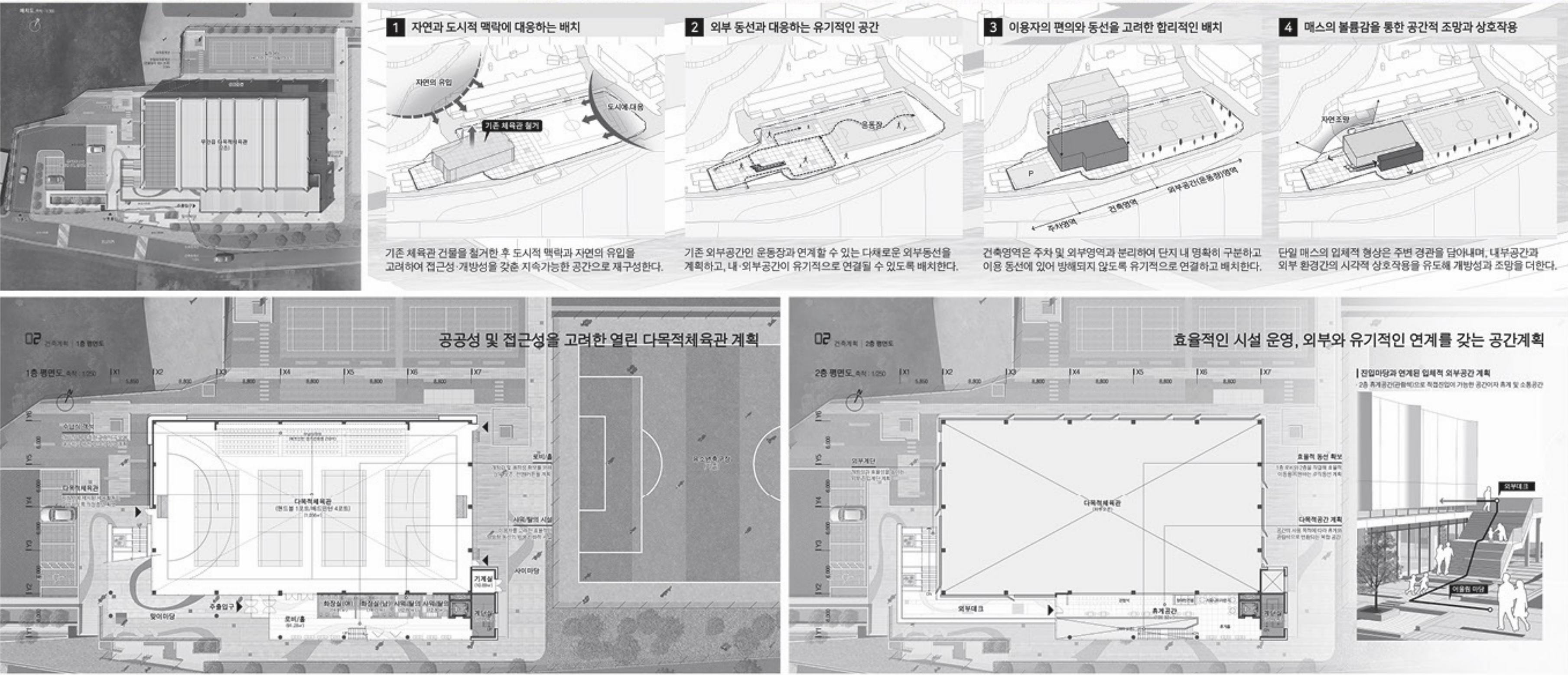
(구)무안고 체육관은 준공 25년 이상 된 교육연구시설로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체육관 사용이 어렵고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소요가 많아 철거 후 근린생활형 체육시설로 신축하고자 함. 무안읍 생활권 중심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체육시설 부재로 인한 체육공간 마련 필요 및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는 핸드볼 엘리트 유소년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함.

심사위원 : 김기준(㈜맥스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치훈(건축사사무소 밀월), 양관목(경동대학교), 이장혁(건축사사무소 수건축), 장동원(동원 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05-3번지
 - 대지면적 : 8,403.00㎡
 - 건축면적 : 1,235.19㎡
- 연면적 : 1,349.91㎡
 - 규 모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당선작

최병민 건축사 / 이담 건축사무소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가을 바다

햇살이 붉게 물들이는 저녁 시간
바다는 황혼의 그림자를 안는다

출렁이는 파도의 거품마다

가을의 향취를 살려와

한 줄기 바람이 물결을 스치고 간다

퍼득이는 갈매기 날개 끝에

고독한 저녁 햇살 하나 품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니

홀로 단신 나무처럼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도

파도와 함께 부서져 사라진다

어쨌든 가을 바다는 고요하니

깊은 생각 말하지 못하고

하얀 비밀을 가슴에 품은 파도는

끝없이 나를 끌어당긴다.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급류

정대건 / 민음사 / 2025. 06. 13.

정대건의 장편소설 「급류」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의 무게를 가진 작품이었다. 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사랑과 이별, 재회라는 익숙한 플롯을 담은 청춘 소설 정도로 생각했지만, 읽는 내내 나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물살에 휘말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소설은 두 주인공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묻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었다. 그래서 책을 덮고 난 뒤에도 단순한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내 삶에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급류 같은 순간들을 되새기게 되었다.

작품은 열여덟 살 도담과 해솔의 첫사랑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다. 가족을 잃는 비극적 사건을 겪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짊어진 채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몇 년 뒤 스물한 살 무렵 다시 재회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기보다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하다. 도담과 해솔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날의 기억 때문에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트라우마와 상처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소설이 보여 준 시간의 흐름이었다. 십 대의 풋풋한 사랑에서 시작해, 이십 대의 불안과 방황을 지나, 삼십 대의 이해와 화해에 이르기까지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축약해 놓은 듯했다. 독자로서 나는 도담과 해솔이 겪는 사건을 따라가며, 내 인생에서도 수없이 겪었던 불안과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겹쳐 보게 되었다. 삶이란 늘 평온한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급류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우리는 깨진 게 아니라 형클어진 거야. 형클어진 건 다시 풀 수 있어.”라는 대사였다. 이 한 문장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자, 내 인생에도 깊이 스며드는 말이었다. 우리는 흔히 시련을 겪으면 ‘모든 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것이 완전히 깨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끈기와 용기다. 이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 또한 삶에서 여러 번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 왔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얽힌 매듭이 풀려 나갔다. 소설 속 메시지는 내가 지나온 경험과 맞닿아 있었고, 앞으로 마주할 삶의 급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주었다.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하고 싶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삶의 급류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아 혼란을 겪는 사람, 혹은 실패와 좌절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급류」는 분명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견디고 결국 다시 사랑을 선택하듯, 우리 역시 삶의 매듭을 풀어나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의 사진 _ 봉한샘 학생작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1 Kinkakujicho, Kita Ward, Kyoto, 603-8361
일본 교토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